

##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내 인생의 아픔을 통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다들 그리하겠지만 내게도 가정은 전부이며 삶의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한 가정의 아픔이 오늘의 내 아픔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해 본다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아픔만 가슴 가득 남게된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도시의 삶을 누리며 살던 내가 결혼이라는 변화의 삶을 따라 농촌의 낮은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난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서투른 농사일에 온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했다. 하지만 무리한 이 생활은 과거 내 속에 감추어졌던 결핵이라는 병의 실체가 내 삶에 다시 드러나게 했다.

83년 발병해서 6개월 간의 치료를 통해 완치를 했던 나, 하지만 무리한 생활로 인해 몸의 면역력은 극도로 약해지고 저항력을 잃어버린 육체는 결핵 앞에 또다시 무너져 내려야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는 공주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심코 방치했던 과거의 아픔이 내 몸의 기관지를 온통 잠식해 버렸고 기

관지 천식이라는 또다른 병으로 이어져 한 번 터지기만 하면 쉬지 않고 터져 나오는 기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해야 했다.

결핵이라는 병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걸음을 멈추어야 하는 천식의 아픔, 하지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육체의 아픔보다 내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정의 문제였다. 신앙과의 불화로 인해 가정의 안식은 사라지고 가정은 내게 온통 고통의 아픔만을 안겨주는 내 아픔의 근원이 되고 만 것이다.

사람이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갈 때 가정의 포근함 속에서 쉼을 얻으면 그로 인해 또다시 힘을 얻어 삶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가정의 힘이 아니런가. 그러나 내게 그러한 가정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아픔은 몸의 상함과 함께 정신의 극한 피곤함으로 이어져 결핵이라는 병 앞에서 인생의 소중한 삶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결핵을 치료하는 것과 함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은 정상적인 치료를 어렵게 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제한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결핵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한 기침과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고 조금이나마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적 삶을 이룰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핵과의 삶을 오래 살다 보니 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이 가정적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의 불화적 요소는 결국 정신적 안정을 해치고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몸이 병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결핵환자들이 가정에서 홀대받게 되고, 또 나처럼 그 아픔 속에서 더 심한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네 가슴 아픈 이들에게 사랑과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렇게 동산에서 같은 아픔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

제는 이들이 내게 있어 가족이며 이곳에서 나는 가정과 같은 평안함을 얻게 된다. 삶은 즐거워지고 생의 의욕이 날로 새로워진다. 결핵은 내 몸의 많은 부분들을 앓아가 정상적 삶을 살 수 없는 현실만을 남겨 주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러한 외적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곳에서 함께 해야 할 가족들과의 삶이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이리라.

지금도 난 조그마한 예배당에 오르기 위해 그 짧은 거리를 두서너 번씩 쉬어서 올라야 한다. 가빠지는 숨결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침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곳이 내게 더없이 소중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이리라.

이제는 어렵게 얻은 이러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잘 가꾸어서 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행복이라는 삶의 모습들로 채워 가리라 오늘도 가슴속에 다짐을 해본다. ✝

“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결핵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